

재보선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선거 결과 따라 정국 '요동'

(서울 20.56%·부산 18.56%)

“사이 진보 투표장 향해” vs “2030 정권 향한 분노 표출” 아전인수 해석 여, 승리시 정권 재창출 동력 확보 ...야, 야권 재편과정 본격 세확장

“미리보는 대선”으로 평가되는 4·7 재보궐선거가 이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여야의 섹션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4·7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정국 구도도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사전 투표율을 두고도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대권·당권 경쟁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선의 변화’는 ‘호남 정치’에도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측되면서 광주·전남 정치권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 재보궐선

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최고치인 20.54%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오전 6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1216만1624명의 선거인 중 249만7959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는 184만9324명이 참여해 21.95%를, 부산시장 선거는 54만7499명이 투표해 18.65%의 투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기존 재보선 사전투표율 최고치는 2014년 10·29 재보선의 19.40%로, 이번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이보다

1.14%포인트 높다.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14%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최근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역대 최고치인 26.69%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최종 투표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60.2%였다. 다만 전국 단위 선거와 달리 재보선은 본투표 날이 평일이고, 사전투표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분산 효과’가 커진 만큼 최종 투표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야는 모두 높은 사전투표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잡지 않았던 ‘사이 진보’가 투표장으로 향했다는 기대감을 표시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여

당에 분노한 20~30대가 사전투표장으로 대거 향했으리라 전망했다.

민주당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은 “당 차원에서 서울 유권자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지인찾기’를 대대적으로 했고, 막판에 호남표가 결집하는 현상도 뚜렷했다”면서 “부동산 투기에 따른 여론이 다소 불리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 각종 여론조사에서 불리하게 나왔을 뿐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열세를 인정하면서도 바닥 민심은 여론조사 수치와 차이가 있다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직력을 고려하면 방심할 수 없다며 분노한 민심을 실제 투표장으로 불러들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모처럼 찾아온 2030세대와

중도층의 발을 붙여 내년 대선까지 정권 심판론의 바람을 이어가겠다는 전략도 엮고 있다.

민주당의 승리로 재보선이 끝날 경우 민주당은 최근의 지지율 하강 국면에서 탈출해 정권 재창출의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국민의힘은 큰 타격을 입고, 야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제3지대’를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정하는 중도세력이 야권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세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책임 논란과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겹치며 권력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후보들의 사전투표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일 오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왼쪽)가 중로구청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왼쪽 두 번째)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출근길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민주당 김명춘 후보(왼쪽 세 번째)는 부산진구노인장애복지관에서 투표를 했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부산 해운대구청에서 투표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해충돌’ 정현복 광양시장 ‘제명’

시장직 이용 부동산 이익...“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 정 시장 입장문

시장직을 이용해 부동산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명 조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김태년 대표권한대행 주재로 최고위를 열고 정현복 광양시장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비상징계를 논의하고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 시장이 윤리감찰단 조사에 불응하고, 탈당 의사를 피력한 점도 고려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일 오후 2시까지 정 시장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같은 날 오후 탈당 입장문을 내놨으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다. 나아가 일부 세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입장문에서 “최근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더 이상 당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탈당하려고 한다”며 “개인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본인 소유 땅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개발지구 편입된 토지 보상을 대토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본인 소유 토지의 예도 부인 A씨가 2019년 8월에 매입한 진월면 신구리 땅(1084㎡) 인근 지역과 진상면 금이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개설 공사도 총사업비 367억 원을 들여 추진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부인 A씨는 진월면 신구리의 또 다른 토지 2필지(4774㎡, 4013㎡)를 매입해 “매실 농사를 짓겠다”며 영농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제명 조처와 별개로 경찰이 부동산을 둘러싼 정 시장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

“4·3 희생자 치유 위해 노력”

여야, 국회차원 노력 다짐

여야는 제주 4·3 73주년인 3일 한복소리로 희생자와 유족들을 추모하며 상처와 아픔의 치유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픔을 치유하고 완전한 해결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수행인 명예 회복 조치, 수형인 재심,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에 대한 법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보상 기준과 절차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4·3 사건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빈다”며 “제주도에서 한경북도까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공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오늘이 세계 속에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인권 증진을 다짐하는 날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임대료 논란’ 박주민, 월세 낮춰 재계약

‘임대차 3법’ 통과 전 월세 인상 논란...월 임대료 9.3% 낮춰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아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근 세입자와 월세를 낮춰 재계약했다.

박 의원은 관제자는 4일 “기존 세입자와 최근 재계약한 게 맞다”며 “구체적인 (월세 인하) 수치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새로운 임대 계약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수치였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 폭은 26.6%에 달했다.

이 계약은 신규 계약인 만큼 법적으로는 전·월

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SNS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한 데 이어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 디지털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박 의원은 결국 임대료를 낮추는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 의원의 조치에 안도했다. 어제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했다고 한다”며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을 화답하는 모습, 역시 박주민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용빈, 광산갑지역위원회와 금당산 일대 정화 활동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4일 “광산갑지역위원회 당원들과 송정공원부터 금당산 일대까지 함께 걸으며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줄김(줄다 & 견다) 캠페인을 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산구 여성위원회는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우리 동네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줄김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날 행사에 광산구의회 공병철 윤혜영 의원과 박미옥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당원 20여명이 함께 했다. 걷는 활동을 비롯해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서도 운동 효과가 높아 관심있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줄김 캠페인’은 상반기동안 매월 첫째주

토요일과 셋째주 토요일 9시30분부터 2시간씩 진행된다. 오는 17일에는 풍영정·영산강 일대에서 줄김을 하고, 앞으로 어등산과 선운지구 황룡강, 송산유원지, 풍영정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 의원은 “줄김 행사는 기후문제와 코로나 위기에서 지구의 건강과 우리 건강, 둘다를 지켜주는 착한 운동이다”면서 “기후위기에 맞서 환경을 지키는 광산이 되도록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인동

싼 빵

- ▶ 동구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 가능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
- ▶ PF 28억 가능
- ▶ 매매 - 21억원, 일시불 대폭 조정가

중개환영. 010-3605-5000

“금”

“매”

-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20층 중 8층, 사무실 전용
- ▶ 계약 108㎡, 전용면적 67㎡
- ▶ 코너, 전망 좋음, 주차 편리
- ▶ 매매 - 1억1천만원
- ▶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6837-4700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